



서재응

삭발한 이용규 “새벽에 필 받아 직접 밀었죠”

덕아웃 말말말

▲소심하게 붙었어요=헬멧에 나비 스티커를 붙이고 나온 나지환. KBO에서 얘기가 나와 헬멧에 붙여왔던 나비 스티커를 제거한 적이 있다.
 ▲좋다! =덕아웃에 앉아 신축구장을 바라보던 앤서니.
 ▲먹는 데는 슬럼프가 없어=선동열 감독, 박재홍 해설위원과 같이 많이 썬 것 같다고 대화를 하다가.
 ▲오셨나 모르겠네=훈련을 지켜보던 선동열 감독, 한화 덕아웃을 들여다보면서, 선 감독은 한화와의 홈경기가 열리면서 스승 김응용 감독과 재회했다.
 ▲새벽에 혼자 필 받아서 밀었어요=삭발 머리로 등장한 이용규, 자신이 직접 머리를 밀었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야구를 하겠다며.
 ▲우리도 다 겪은 거야=김선빈, 21일 1군에 등록된 막내 한승혁이 힘든 표정으로 삼부름하는 것을 보고.
 ▲빠른 볼 배우겠다고 기다라고요=룸메

이트 질문을 받은 서재응, 함께 밤을 썼던 임준섭이 김진우와 토크쇼를 하고 있다면서, 임준섭은 서재응에게 슬라이더를 전수 받았다.
 ▲아닙니다=서재응의 농담에 임준섭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재응이 독방을 쓰면서 밤을 읊었다는 설명을 하며.
 ▲오래 안 있어서 모르겠네=류현진이 대한 대화 도중 미국에서도 선발투수가 미리 이동을 한다는 질문을 받은 서재응, 뉴욕 메츠에서 시절에는 그랬는데 LA 다저스에는 오래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웃으며, 류현진은 LA 다저스 소속이다.
 ▲어! 한화가 8위네=순위표를 보던 한화 김성환 수석코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순위표를 못 보겠다고면서.
 ▲누구 필요하세요?=이순철 수석코치, 김성환 수석코치와 따로 자리를 옮기며.
 ▲100점이요=시즌 첫 선발 등판에 몇 점을 주겠다는 질문을 받은 윤석민, 백투백 훈련을 맞고 패전투수가 됐지만 아픈 곳 없이 공을 던진만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성공 비결은 투구 밸런스”

① KIA 덕아웃에서 열린 ‘서재응 야구 교실’



‘밸런스’가 류현진의 성공 전략. 21일 KIA 덕아웃에서 서재응의 야구 교실이 열렸다.

스포츠채널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혁의 그림 질문과 함께 서재응의 야구 이야기가 시작됐다. 자신의 그림을 쥐어보이던 서재응은 체인지업에 대한 얘기도 꺼내 놓았다.

서재응은 빅리그에서도 통한 서클 체인지업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클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고 있다. 팔 각도 때문이다.

서재응은 “팔 각도가 높았을 때는 위에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떨어지는 데 팔이 쳐지면서 공이 바깥으로 흐른다. 굳이 공을 하나 버릴 필요는 없지 않다. 차라리 투심을 던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던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번씩 류현진이 체인지업을 날리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밸런스”라고 얘기를 했다.

올 시즌 빅리그로 변신한 류현진(LA 다저스)의 특급 무기도 서클 체인지업이다. 류현진은 우타자 바깥으로 흐르는 명품 서클 체인지업으로 빅리그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무대에 적응을 하면서 기록을 보이고 있다.

서재응은 “(류)현진이의 경우는 밸런스 때문에 그럴 것이다. 밸런스가 빠르면 한번씩 공이 흐를 수 있다. 앞으로는 밸런스가 관건이 될 것이다. 체력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새벽에 이동을 하기도 하고 4일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한국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3시간 시차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서클 체인지업 그림

우타자 바깥 쪽으로 흐르는 서클 체인지업이 특급 무기 체력·밸런스 받쳐줘야 효과

특히 울스타브레이크(울스타진이 열린 이후의 휴식기간)를 전후로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체력저하가 오면 밸런스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류현진의 첫 시즌의 성적을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서재응은 “체력이 힘들면 밸런스를 잃게 된다. 체력이 떨어지면 공을 던지면서도 순간순간 밸런스를 잃는다. 2003년 울스타브레이크를 앞두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럴 땐 쉬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그럴 수도 없고,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인데 그럴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볼펜 피칭 생략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볼펜 피칭을 한 뒤 하루를 쉬고 선발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류현진은 볼펜 피칭을 생략하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서재응은 “미국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선발에 들어가는 게 많이 부담됐었다. 팔이 안 풀린 상황에서 볼펜 피칭을 하는 게 힘들었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류현진 5승 도전... “아오키·세구라를 넘어라”

내일 새벽 2시10분 밀워키 원정 1·2번타자 좌완 상대 타율 높아

미국 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26)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끝자릿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시즌 5승에 도전한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류현진이 23일 오전 2시1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리는 밀워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밀워키는 20일 현재 17승25패를 거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끝자릿 다저스와 동률을

이했다. 최근 10경기 동안 2승8패를 거둬 4승6패를 기록한 다저스보다 성적이 더 처참하다.
 밀워키는 그러나 홈에서는 10승11패로 그나마 안타깝게 가까운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6승12패로 약한 다저스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
 빅루프 마운드 평균자책점이 4.56으로 메이저리그 27위에 머물러 끝자릿을 달리고 있지만, 팀 타율은 0.261, 메이저리그 10위로 떨어

지는 편이 아니다.
 류현진이 특히 조심해야 할 선수는 테이블 세터인 1, 2번 아오키 노리치카와 진 세구라다. 아오키는 올 시즌 타율이 0.333에 육박하며 4홈런, 11타점, 6도루를 기록한 가운데 출루율이 0.407로 1번 타자로서 손색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좌완 상대 타율이 0.379에 이르기 때문에 류현진으로서는 경계대상 1호다.
 타율 0.364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1위를

달리는 세구라 또한 좌완을 상대할 때 타율이 0.393으로 우완을 상대할 때(0.349)보다 높다. 이들을 넘으면 2011년 내셔널리그 MVP인 라이언 브라운이 기다린다.
 류현진은 시범경기 때 밀워키와 두차례 맞붙어 첫 승리를 밀워키를 상대로 거둬둔 매틸리 다저스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류현진과 맞붙을 밀워키의 선발은 3승 4패에 평균 자책점 5.94를 기록한 우완 윌리 페랄타다.
 /연말뉴스

KIA 가는 곳마다 ‘구름관중’

전국구 흥행 돌풍... 프로야구 200만 관객 돌파 눈앞

프로야구가 2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13 프로야구가 22일 170경기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경기의 28%(162경기)가 진행된 지난 19일까지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 2849명으로 총 191만9579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초반 기세는 주춤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개막과 함께 계속된 폭염 추위로 비어있던 관중석이 5월 날씨가 풀리면서 가득 차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잠실, 문화, 마산, 대전 4개 구장에 8만1764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첫 전구장 매진과 함께 올 시즌 하

루 최다관객이 쓰여졌다.

잠실에서 열린 KIA와 LG의 주말 3연전은 모두 매진되었으며, 마산에서 열린 삼성-NC전과 대전에서 열린 두산-한화전도 17·18일 이틀 연속 매진 사례를 이뤘다.

KIA가 흥행의 돌풍 중심에 있다. KIA는 지난 4월26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5월 5일 목동경기까지 홈-원정 9연전을 모두 매진 시키는 진기록을 만들었다. 특히 4월 30일부터 열린 두산과의 3연전은 18년 만에 기록된 잠실구장 주중 3연전 매진기록이다.

홈경기에서도 9개 구단 중 가장 많은 7경기에서 만원 관중을 불러모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한민국야구 박람회’ 7월 서울서 열린다

야구 축제의 장인 ‘대한민국 야구 박람회’가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야구박람회 사무국은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제2회 대한민국 야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야구산업과 관련된 70개 업체(110개 부스)가 참여하며 글러브를 비

롯한 야구용품, 의류, 액세서리, 시설장비·기자재 등 다양한 야구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야구박람회 홈페이지(www.baseballexpo.c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7월 3일까지 팩스(063-250-5249) 혹은 이메일(ball@jtv.co.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

무등중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동성중 꺾고 3승

정영웅 2승 MVP

무등중이 제18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무등중은 20일 KIA 함평 야구장에서 열린 동성중과의 대회 풀리그 3차전 승부에서 8-7로 승리를 거두며 3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3회말 선발 정영웅의 난조로 3-4 역전을 허용했던 무등중은 4회초 대거 4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역전을 이뤘다. 이후 1점 차의 리드를 지키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진흥중은 2승1패로 준우승팀이 됐다.

무등중의 좌완 정영웅은 3.68의 방어율로 11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팀의 2승을 책임지며 대회 MVP로 선정됐다.

정영웅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나의 롤모델이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운동해 추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등중 3루수 이강규는 9타수8안타(타율 0.889) 6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격왕·타점왕·최다안타상 등 3관왕에 등극했다.

◇수상내역

▲최우수선수상=정영웅(무등중) ▲우수투수상=신재왕(무등중) ▲감투상=정영



무등중 정영웅 투수

(진흥중) ▲타격상·최다타점상·최다안타상=이강규(무등중) ▲최다도루상=이재홍(동성중) ▲타점상=박민규(진흥중) ▲수훈상=곽건희(무등중) ▲지도상=오동규(무등중 야구부장) ▲감독상=김성일(무등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